

광주·전남 대북교류 '재시동'

남북대화 물꼬 트이자 시·도 사업 재개 나서

광주시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박차
시의회 남북학생교류협의회 구성 제안
전남도 평양 콩 발효식품공장 재추진

2년4개월만에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남북교류 사업의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남북교류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적립해온 남북교류기금 36억원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중이다.
광주시는 특히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UN 협력사업을 통한 접촉 재개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인도적 지원으로 어린이의 약품과 식량 지원 등을 준비중이며, 장기 계획으로 식수확보, 자연재해 예방, 나무심기 지원 등을 검토하

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U대회 남북 단일팀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문화체육교류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광주시와 협의해 조만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구의원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광주시의원)도 개성공단 방북 신청 등과 함께 남북관계 해빙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단됐던 평양비닐온실과 콩 발효식품공장 건립 등의 대북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왔고, 지난 2011년 목표액 10억원을 채우자 50억원으로 목표액을 다시 늘려 등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6억원을 적립해 둔 상태이며, 지난 2008년 2억원을 지원한 데 그친 콩 발효식품공장 건립 및

평양 비닐온실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결국 남북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장기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교류 중단)에 따라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등 사실상 대북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에도 남북교류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평화통일 아카데미 예산으로 3000만원만 지출했을 뿐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으며, 통일부에 북한 수해돕기 지원금으로 2억 2000만원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도 지난 2008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한 대북교류를 해왔으나, 5·24 조치 후 대북지원 예산 대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전라도 아줌마들 끼와 열정으로 하나되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아줌마 축전'에 시·도민 등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전은 아줌마들의 흥과 끼가 넘치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졌으며, 지역 농·축·수 특산품을 싸게 구매하는 '알뜰장터'이자 지역 명품축제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2회 아줌마 축전 10만여명 참여 3일 열전 성료

호남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한 '제2회 아줌마 축전'이 3일간의 열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일보는 주최한 이번 축전은 전라도 아줌마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웃음꽃을 피운 '행복충전 무대'였으며,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알뜰장터'이기도 했다.
/관런기자·화보 9면
지난 7일 2013년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개막해 사흘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무대를 꾸민 이번 축전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지역 명품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부들은 '아줌마가요제'를 비롯해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대회·팔씨름·골든벨·시낭송 등 각종 경연에서 그간 숨겨온 노래와 춤 솜씨 등을 뽐내며

낮기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무색할 정도의 열전 경연을 펼쳤다. 개막 후 사흘간 저녁에는 박구윤·홍주·백승일·진시몬·강진·신유 등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아줌마가요제'에선 최금순(57·광주시 동천동)씨가 대상을 차지했고,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대회'에선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예운생블름(27·여수시 고서동)씨가 1위를 차지,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주부들의 재치와 시사상식을 겨

루는 '아줌마골든벨'에서는 심은진(34·순천시 연향동)씨가 우승해 3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이밖에 '시낭송대회'에선 최현화(44·광주시 서구 금호동)씨가 최우수상을, '팔씨름대회'에선 김금순(53·순천시 서면)씨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만물이 성장하는 초여름 신록과 함께 한 이번 축전에는 지역 특산물 200여 품목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남북 장관급회담 12일 서울 개최 사실상 합의

北 개입설 주장·네티즌 등 5·18 왜곡 10명 고소

관문점 실무접촉 대표단 규모·이동 경로 등 논의

남북 양측은 9일 관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관런기자 3·5면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이 12일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걸 기본 사안으로 깔고서 의제 설정 문제, 대표단의 규모나 체류일정, 경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서로 합의서 문안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에 세 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서 내용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을 제외했지만,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제외하면서 밝힌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양측은 회담 대표단의 구성과 관련해 수석대표와 대표 숫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

로 전해졌다. 특히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대표단의 규모가 연관돼 있어 의제가 많아지면 대표단 규모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회담 관계자는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회담의 테크니컬 특정 인물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단의 체류 일정에 대해 하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경로 등도 북측 대표단이 오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추가로 2~3차

회 추가접촉을 가진 뒤 이날 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최소한 두세 번 접촉을 하고 합의되면 전체회의를 해서 마무리한 뒤 합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연희스

손연재
선수권
3관왕
▶ 14면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비하한 누리꾼 등을 고소하는 등 '5·18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관런기자 2면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광주지검에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근거 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18 관련 비방 게시물을 게재한 누리꾼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김병국·이주성·서석구,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권용씨와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6명 등이 고소 대상자다.

이들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5·18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 '흉어' 등으로 비하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고소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을 비롯, 5·18 관련자 31명과 5·18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4개 5·18 관련단체를 포함해 35명(단체)이다. 왜곡 대책위원회는 또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고소, 민사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책위에는 5·18 왜곡·비하

와 관련된 사례만 1900건이 넘게 접수됐으며 전국 430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고소·소송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메이드인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둬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커버스토리
메이드인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둬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아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축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학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학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에명이 만난 이사람
KIA타이거즈 팬들의 비타민
응원단장 김주일이 말하는
"이것이 스포츠 엔돌핀"

'꽃받치 끼고'의 가수, 은희
그녀가 '갈웃'에 빠진 사연